

가족주의 관점에서 본 KBS<이웃집 찰스>의 이주민 가족 재현 연구 - 이주 남성 가족을 중심으로

Representation of Migrant Families in TV Reality Shows from a Familialism Viewpoint

- Focusing on Male Participants in KBS <My Neighbor, Charles>

박미경*, 이현율**

수원대학교 산학협력단*, 고려대학교 미디어학부**

Mi-Young Park(olivemk@hanmail.net)*, Hun-Yul Lee(nomedia@gmail.com)**

요약

본 연구는 이주민의 미디어 재현 변화를 분석하기 위하여, KBS <이웃집 찰스>에 나타난 새로운 이주민의 재현을 내용분석하였다. <이웃집 찰스>는 지상파 프라임타임 시간대에 편성되어, 안정된 시청률을 보이면서 방송되고 있다. 기존 이주민 프로그램과 비교, <이웃집 찰스>가 재현에서 보이는 차이점은 크게 인구 사회학적으로 다양한 속성의 이주민 출연과 결혼이주남성의 주인공 등장을 들 수가 있다. 차이의 원인을 보면, 최근 이주의 형태가 동남아 결혼여성과 노동자 중심에서 지역적으로 서구 사회를 포함하고 결혼남성이 증가하는 형태로 다양화하고 있다. 이런 변화가 미디어 재현을 부분적으로 견인하고 있다고 본 연구는 발견하였다. <이웃집 찰스>에서 이주민 재현 대상자는 다양해졌지만, 이주민을 한국 전통 문화에 통합되어야 하는 대상으로 간주했던 민족주의적인 특징도 잔존했다. 이주민의 활동을 공적 영역으로 확장시키고, 사회적 차이와 편견에 대한 의견 개진, 한국 전통문화에 대한 비판 등은 이주민의 재현을 긍정적으로 확장시킨다. 동시에, 젠더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주민 가족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형태의 문제들이 재현되었지만, 전통적인 가족주의 담론이 문제 해결 수단으로 제시되었다. 정리하면, 본 연구는 이주민과 관련한 사회적 변화와 함께 나타나는 이주민 재현 변화를 분석, 기존 이주민 연구를 보강하고자 한다.

■ 중심어 : | 다문화 사회 | 결혼이주남성 | 가족주의 | 재현 | 젠더 |

Abstract

This paper analyzed the representation of migrants in television with the example of KBS's *My Neighbor, Charles*. This primetime TV show with consistent popularity has showcased different types of migrants from other Korean television shows in terms of gender and race, and, partly the difference brought popularity to it. This study finds the major reason of the difference from changed migration patterns in Korea. Until recently, the main population of immigrants in Korea was composed of female brides and workers, but it became diversified to include male and the West migrants. This triggered the changes in media representation, but not thoroughly. Though the faces of migrant protagonists have been diversified, the remaining ideology of nation-centric that has been the main frame to regard migrants as someone to be integrated through traditional values persists. This study finds a few conflicts between the traditional and the change. For example, represented realities of migrants are extends to include their activities in public domain, disputes of multicultural society such as social differentiation and bias, and the criticism of Korean traditional culture. In a gender perspective, while all the marriages represented showed different kinds of vulnerability, discourses of traditional familialism were also clearly presented through different tools of representation. This study aims at contributing existing studies of media representations of migrants with a more complicated pictures in the context of social changes and migration population changes.

■ keyword : | Multicultural Society | Male Marriage Migrants | Familialism | Representation | Gender |

I. 서론

신자유주의의 확산과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국가 간의 경계를 넘는 이주의 지구화가 가속화되었다[1]. 이주민의 지속적 유입으로 국내 거주 외국인 인구는 2015년 기준 174만여 명으로, 이는 2006년 54만여 명 대비 연평균 14.4%의 급속한 증가하여 한국사회도 다문화 사회로 나아감을 알 수 있다[2].

이러한 추세에 따라 최근에 외국인이 출연하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이 증가하였다. 수용자의 다문화 인식 및 태도 형성에 미디어가 영향력을 크게 발휘한다는 점[3]에서 미디어를 통한 이주민 재현은 중요한 문제이다. 특히 외국인의 삶을 관찰 형식으로 조명하는 리얼리티 프로그램은 실제와 오라이 혼재하여 시청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더 복잡하다. 이런 가운데 최근 이주민 관련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 나타나는 변화는 기존의 결혼 여성이주민 중심에서 다양한 형태의 이주민들이 출연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 중 두드러진 예는 JTBC <비정상회담>나 KBS <이웃집 찰스> 등의 프로그램에서 재현되는 남성 이주민들이다.

이런 변화는 본문에서 살펴볼 것과 같이, 국내 유입 이주민들의 인구학적 변화와 관련이 있다. 초기 이주민들은 노동 이주와 함께 한국의 ‘가족 위기’에 대응하는 아시아권 결혼이주여성으로 요약된다. 외국인 여성 중심의 이주는 방송에서도 <러브 인 아시아>, <다문화고부열전>이나 <미녀들의 수다>와 같은 여성 대상화 프로그램들을 양산했다. 여전히 한국 남성과 아시아권 이주 여성의 결혼 유형이 큰 부분을 차지하지만, 최근 다른 형태의 국제결혼도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 중, 유학, 어학연수, 근로 이주 등 세계화와 함께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에 힘입어 결혼한 유형들은 ‘신다문화 가족’이라고 구별되기도 한다[4]. 이들은 기존의 국제 결혼과 비교해, 인종, 성별, 출신 국가, 문화 등에서 다양한 차이점을 보인다.

이런 이주민 인구의 변화를 기반으로 앞서 언급한 결혼이주남성을 중심으로 한 방송 프로그램이 등장했다. 특히, 출신과 성별, 문화, 결혼 형태 등에서 다양성을 보여주는 KBS <이웃집 찰스>는 인구학적 변화와 조응

하는 방송 프로그램의 이주민 재현 변화를 볼 수도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본 연구는 KBS <이웃집 찰스>에서 재현되는 이주민과 이를 통한 젠더 담론을 이해하고자 한다. 지금까지 이주민 방송 프로그램 연구에서 결혼이주여성의 성적 대상화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었다는 점에서 젠더 관점은 중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먼저 이주민 인구의 변화, 젠더와 가족주의, 미디어 재현 등의 요인들을 살펴본 후 <이웃집 찰스>에 재현되는 젠더와 가족, 다문화 등의 쟁점을 살펴볼 것이다. 기존의 연구에 없었던 젠더 간 재현의 차이, 가족주의를 둘러싼 다양한 형태의 재현 등이 이주민 방송 재현에 대한 기존의 연구에 기반을 두어 보다 다양한 관점들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II. 이론적 배경

1. 한국의 다문화주의와 결혼이주민

다문화 사회 형성은 각 사회마다 다양한 요소가 복합하고 차별적으로 전개된다. 다문화주의는 한 사회의 지배적 다수 집단이 소수 집단을 동등한 가치로 인정하는 ‘인정의 정치(politics of recognition)’를 핵심으로 하지 만[5], 이주민 수용의 정도는 차이를 보인다. 이런 차이를 캐슬과 밀러는 이주민이 사회에 편입(incorporation)되는 수용 정책을 크게 구분 배제(differential exclusion), 동화(assimilation), 통합(integration), 다문화주의(multiculturalism)로 분류한다[1].

한국에서는 1990년대 초반을 전후로 노동 인력과 결혼 적령기 여성인구 부족을 메우기 위해 유입 이주가 허용되면서 이주민들은 계급적이거나 젠더적인 담론의 객체로 이해되었다. 특히, 결혼 이주민은 9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진행되는 가족해체를 봉합하기 위한 대응책으로 여성 이주민을 적극 받아들이면서 이주민 문화의 중심으로 떠올랐다. IMF 이후 악화된 경제 환경을 배경으로 남성 주부양자 생계모델이 약화되고 여성들의 자의적·타의적 경제활동 참여 증가하면서 기존 사회의 불평등한 젠더 체계는 균열을 보였고, 인구학적·경

제적 이유들로 결혼 기피 여성을 증가시켰다. 이는 주변부에 위치한 농촌이나 도시 저소득층 중심의 결혼적령인구의 성적 불균등 현상과 중첩하여, 결혼을 하고 싶지만 못하는 남성의 수를 증가시켰고, 정책적으로 국제결혼이 추진된다. 결국 무너지는 가족구조가 신부를 해외에서 수입함으로써 지지된 것이다[6]. 이처럼 한국 사회의 이주민 인구의 핵심에는 젠더·가족·사회적 문제가 함께 얽혀 있다.

이런 맥락에서, 초기 이주민에 대한 이해와 관심은 결혼이주여성에게 집중되었다. 하지만 결혼 이주의 패턴은 한국 여성과 외국 남성의 결혼이 증가하면서 변화하고 있다. 통계청의 ‘외국인 아내/남편의 국적별 혼인’[7] 자료에 의하면 한국 여성과 외국 남성 간의 국제결혼은 2007년 23.9%에서 2015년 31.0%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결혼 상대자의 국적도 결혼이주여성과는 달리 북미, 유럽 등 서구 사회 남성이 늘고 있어, 한국의 국제결혼 지형이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결혼 이주의 젠더적 양상이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 기반하여, 초기 결혼이주여성을 중심으로 생성되었던 가족·젠더 담론이 이런 변화에 보조를 맞추고 있는가가 본 논문의 관찰점이다.

2. 한국의 가족주의와 결혼이주민의 문화혼종

결혼을 통한 이주민의 한국 사회 적응 과정에서 두드러지는 문화 차이는 한국의 가족주의 문화이다. 전통적 가족체계는 급속한 산업화로 변화를 겪었지만, “전반적 소득향상에 힘입어 각자의 가족 책임으로서의 사회재생산에 충실”한 전통적인 가족관계에는 변화가 없었다[8]. 전통적 가족주의는 사회의 기본 단위로서 개인보다 가족에 우선권을 두고 그 구조의 유지에 관심을 가진다[9]. 이런 전통적인 가족주의에 대한 대표적 비판점은 페미니즘적 관점과 확대 가족주의적 관점이 있다[9][10].

첫째, 페미니즘적 관점은 한국 사회의 가족주의를 가사 노동의 의무가 여성의 희생과 억압에 기초하여 재생산되는, 한쪽 성에만 불평등하게 치우친 구조로 비판한다. 가사 노동의 불평등한 분담은 근대사회의 ‘전통적 성별 분업 체계’, 즉 남성은 임금노동자, 여성은 돌봄

노동 수행자로 자리 잡았지만, 신자유주의 체제에서 여성들이 일터로 나오면서 노동의 불평등은 심화된다. 남성은 일, 여성은 일·가정이라는 ‘신진통적 성별 분업’[11]이 젠더 불평등을 전통적 가부장제 시대보다 심화시켜, 신가부장제 시대라고 정의된다[12].

확대 가족주의적 비판은 신가부장적 구조가 사회로 확대되어 가족 내 성적 불평등이 사회에서 특정집단에 대한 차별로 이어진다고 관찰한다[9]. 예를 들면, 국가나 기업을 가족의 확대로 보고, 가족 안에서 이루어졌던 노동분업이나 불평등을 그대로 전이시킨다는 관점이 확대주의적 비판의 핵심이다. 이주민과 관련시켜 본다면, 사회·경제적인 이유로 이주를 합법화하고 있지만, 이들은 원주민에 비해 경제·사회적인 권리에서 차별적인 대우를 받는다. 원주민은 순혈주의에 기반을 두고 공론장에서 공적인 담론을 주도하는 한편, 이주민들의 이해는 사적·경제적 담론으로 치부되어 차별이 정당화된다.

상술한 두 비판적 관점에 기초하여 결혼이주여성의 문제를 살펴보면, 1990년대 이후 정책적으로 추진된 국내 주변부 남성과 국제결혼한 아시아 지역 이주여성은 이중적인 억압을 받고 있다. 하나는 경제적으로 저개발국 출신이라는 것이고, 둘은 가부장적 가족문화에서 여성이라는 지위이다. 결혼이주여성은 내국 여성보다 훨씬 더 가부장적 문화에 수동적으로 편입되었고, 불평등한 성 역할 분담, 남성 위주의 위계적 차별, 언어 소통 문제로 오랫동안 타자화를 극복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3].

이와 달리, 서구 근대 가족의 보편적 규범으로 자리 잡은 중산층 핵가족 유형과 개인주의 인권 개념에 익숙한 서구지역 출신의 결혼이주민은 좀 더 복잡한 양상을 보이며 한국의 가족주의와 타협한다. 초기 이주민의 이중적 차별과는 달리 서구 출신 결혼이주민들은 경제·문화적으로 동등·우월하다고 인식되는 경우가 많고, 가족주의에 무차별적인 종속보다는 서로 다른 정체성을 기반으로 ‘두 국가 사이의 가족 문화’를 만드는 과정을 겪는다[14]. 이주민은 ‘떠나온 고향과 거주하는 타향 사이의 긴 위치에서’, 두 문화의 착종과 겹침이라는 혼종성(hybridity)을 인정하고자 하는 복합적인 교섭

(negotiation)의 과정을 통해 새로운 정체성을 형성하게 된다[15]. 정리하면, 결혼이주민과 관련한 가족주의 내 젠더 역할은 이주민의 출신과 그 사회·경제적인 배경에 따라 다양한 양태를 보인다. 지금까지 초기 결혼이주민을 중심으로 한 연구들은 이들의 이중적 차별의 재현에 관심을 두었다. 본 연구는 성별·출신별로 다양해지는 결혼 이주 변화를 바탕으로 미디어 재현에서 나타나는 변화에 주목한다.

3. 미디어 재현과 선행 연구

재현(representation)은 언어나 이미지를 사용해 의미를 구축해가는 과정이다. 미디어가 재현하는 현실은 대중의 인식을 바꿀 수 있는 영향력을 발휘한다. 홀[16]은 미디어가 재현하는 현실이 주어진 사실의 결합이 아니라, 특정 방식으로 개념을 수집, 조직, 배열하고 분류한 것이라고 본다. 이렇게 구성된 현실이 당연한 실체로 인식될 때 ‘이데올로기적’이라 일컬어진다. 즉, 텔레비전이 표상하는 현실 기저에는 문화적 결정과 사회적 지배 가치의 관계 구조가 반영되어 있는 것이다[17].

따라서 결혼이주민과 관련한 미디어 재현 연구도 이런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 결혼이주민을 포섭하고 있는 가족주의 이데올로기와 이것의 미디어를 통한 재현·변화는 방송 프로그램 내용 연구에 주요한 주제가 되어 왔다. 그 이유는 방송물에서의 재현은 한쪽으로는 이주민에 대한 반편견적·반차별적 사고 능력을 키울 도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18]. 반면, 보수적인 재현은 외국인에 대한 고정관념을 고착시킬 수도 있기 때문이다[19][20]. 이주민 재현에 대한 연구는 이주민 증가와 함께 2000년대 초반부터 꾸준히 진행되었다. 이런 연구는 크게 이주 유형, 인종, 젠더, 프로그램 장르별 연구로 나눌 수 있다.

이주 여성에 대한 분석은 미디어에서 여성을 젠더적으로 재현하는 방식의 문제를 분석한다. 리얼리티 프로그램 KBS <러브 인 아시아>는 아시아계 결혼이주여성 출신 지역과 개인적 특성을 지닌 정체성의 주체가 아니라 며느리, 아내, 어머니라는 가부장적 가족 규범의 타자로 정형화시키거나 시혜의 대상으로 타자화한다[21][22]. EBS <다문화 고부열전>에서는 결혼이주여성

에 대한 끝없는 동화주의, 새로운 혈육 만들기라는 가족 중심주의와 온정주의가 나타나고 있다[23]. 그 외 드라마와 다큐멘터리에서도 결혼이주여성의 다문화적 요소는 해결해야 할 장애물로 제한적으로 전유되거나, 한국 남성에 의해 주도되고 통합되는 방식으로 묘사되었다. 이런 남성 중심적, 한국 중심적인 타자화, 상품화는 다문화적 불평등을 정당화하고 재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24].

오락 토크쇼 <미녀들의 수다>는 다문화 주체에 대한 대중의 이해와 친근성을 높이는 했지만, <러브 인 아시아>와 대비하여 전문직 서구 여성의 이야기 수용을 글로벌화로 차별하여 ‘한국적 다문화주의의 이중적 잣대를 고착화’시켰다[25]. 한편, 토크쇼 <비정상회담>도 한국말을 잘하는 전문직의 엘리트 외국인 남성을 여성 소비의 대상으로 내세웠다는 점에서 <미녀들의 수다>와 같이 출연자를 성애화된 대상으로 소비하지만 두 프로그램이 여성과 남성을 소구하는 성격이 상반되어, 젠더가 재현 내용과 형식의 중요한 변인으로 발견된다[26]. 정리하면, 기존의 재현 연구는 미디어가 이주민에 대한 수용자의 관심을 촉발하기는 했지만, 이주민을 이주 유형, 인종, 젠더에 따른 위계질서를 고착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주로 비판한다. 또한 미디어가 결혼이주여성 위주로 재현하여 젠더 차별을 강화시킬 우려가 있어 이런 현상에 대한 개선과 함께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함을 제기하기도 한다[19][27].

III. 연구 대상 및 연구 방법

1. 연구대상의 선정과 연구 방법

KBS <이웃집 찰스>를 분석대상으로 선정한 이유는 이 프로그램이 다양한 이주민 유형을 노출·재현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지상과 프라임 시간대 방송, 안정적인 시청률, 리얼리티 예능 장르의 실재성과 재미 요소를 결합하여 수용자의 다문화 이미지 형성에 영향력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정규 프로그램으로 편성된 첫 방송일부터 10.5%라는 높은 시청률을 보인 후, 분석 시점까지의 평균 8.5%라는 안정적인 시청률로 현재까지 방송

되고 있다는 점에서 시청자 인기를 확인할 수 있다.

<이웃집 찰스>는 ‘한국 사회에 정착하고자 하는 이주민들의 리얼 적응 스토리를 담은 신개념 리얼리티 프로그램’을 표방하고 있다. 프로그램 형식은 이주민의 삶을 밀착 촬영한 리얼리티 프로그램 형식과 ‘이방인 학교’라는 스튜디오 토크를 같이 가지고 있다. 오락 요소를 가미한 자막과 전지적 작가 시점의 진행자 내레이션을 특성으로 하는 연성화된 다큐멘터리라고 볼 수 있다. 동대문에 설치된 여행 가방 모양의 ‘이방인 학교’라는 스튜디오 세트로 신입생 이주민을 초대하여 진행자는 학교 선생님이요, 먼저 정착한 이주민은 선배로, 함께 사전 촬영·편집된 영상물을 보면서 그들이 겪고 있는 고민과 갈등의 해결을 모색하는 프로그램이다.

결혼을 통해 한국의 ‘가족’구성이 되는 결혼이주민 재현 분석을 위해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가진다.

연구문제 1: 리얼리티 다문화 프로그램에서 결혼이주민은 공적 영역에서 어떻게 재현되는가?

연구문제 2: 리얼리티 다문화 프로그램에서 결혼이주민은 사적 영역에서 어떻게 재현되는가?

분석 방법으로는 텔레비전 영상물을 특정한 장르적 관습과 제작자의 선택과 결정의 집합체로 수용자에게 가치 있는 경험을 제공하는 텍스트로 간주하고, 영상이 내포하고 있는 여러 층위의 의미들을 분석하는 보드웰과 톰슨의 영상 분석 기법을 적용했다[28]. 영상은 형식(form)과 기법(style)이라는 두 측면으로 구성되어 전체적인 의미를 만든다. 영상의 형식은 스토리 라인, 인물의 특징, 반복과 변형 같은 서사(스토리)적 요소와 패턴으로 구성되어 있다. 서사에는 시대적 이데올로기가 포함되며 시청자가 영상에 대해 감정이입과 같은 정서적 반응을 일으키는 요인이므로 이주민 재현과 재현 변화를 볼 수 있는 중요한 실마리이다.

2. 출연자 속성과 분석대상 표집

1. 닐슨코리아 가구당 시청률 기준

이 논문의 프로그램 분석은 KBS <이웃집 찰스>의 2015년 1월 6일 첫 방송물부터 2016년 2월 23일까지 총 54회분에 등장한 이주민의 인구사회학적 속성을 분석하여 결혼이주민 분석의 타당성을 확인한 후, 밀착 분석을 위해 재현 분석 대상 주인공을 표집하여 연구를 진행했다.

출연자의 인구사회학적 속성 분석은 이주 유형, 성별, 출신국으로 분류했다. 이주 유형은 국제결혼 이주와 노동 이주로 범주화했다.² 국제결혼이주는 세부적으로 한국인과 결혼한 경우와 외국 국적 출신끼리 결혼한 경우로 분류했다.

표 1. 이주유형별 결혼이주민 국적 및 방송 회차³

이주유형	남성	여성
한국인과 국제결혼 (13개 23편)	아노 (프랑스, 1-5, 54) 이바일로(불가리아, 14-16) 사무엘 (이탈리아, 18-20) 엠마 (미국, 18-20) 니르 (이스라엘, 21-23) 니콜라 (프랑스, 43) 밥 (미국, 48)	줄리아 (이탈리아, 1-5) 에이미 (캐나다, 21-23) 하루나 (일본, 24-26) 베아트리스(브라질, 40) 타베아 (독일, 46) 샤를라마르하보 (우즈베키스탄, 50)
외국인 간 국제결혼 (8개 16편)	마흐무드 (우즈베키스탄, 6-9) 숨 (코트디부아르, 10-13) 그렉·제니 부부 (미국, 32-34) 강바타르 (몽골, 35) 나히드 (아프가니스탄, 38) 알랜 (콩고, 44) 시연 (미얀마, 45) 기소르 (네팔, 53)	

인구사회학적 속성에 따라 출연자를 범주화한 결과, 이주 유형별로는 국제결혼 가족 이주민이 총 21개 이야기, 39회, 노동 이주민이 총 16개 이야기, 32회에 걸쳐 방송되어 가족으로 소개되는 이주민 유형이 더 많았다.

한국인과 결혼한 이주민은 총 13개 이야기, 23회에 걸쳐 방송되었으며, 프로그램 초반부부터 시리즈 형식으로 비중 있게 소개되어, 프로그램 전체에 걸쳐 지속적으로 등장하는 유형이라는 분석 타당성이 확인되었다.

결혼이주자의 국적과 인종을 보면, 한국인과 결혼한 이주남성은 미국인 엠마를 제외하면 모두 백인이며, 결

2. 유학생 이야기는 결혼이주에 3개, 노동이주에 1개가 있으나, 연구목적에 맞는 큰 범주화로 분류하였다.

3. 외국인간 국제결혼은 남성이주민 중심 가족 위주의 서사 전개가 많아 성별 구분을 하지 않았다.

혼이주여성도 일본인 하루나를 제외하면 백인 또는 서구적 외모를 지녔다. 반면, 순수 외국인들끼리 결혼한 이주민들은 미국인 부부 한 쌍을 제외하면, 모두가 저개발국 유색인종으로 인구학적 속성에서 확연한 차이를 보였다.

상술한 분석을 기반으로, 결혼이주민의 재현 방식을 면밀히 분석하기 위해 총 13개의 이야기 가운데 성별, 출신 지역, 방송 시기를 고려하여 8개 이야기에 등장하는 9명의 출연자를 [표 2]와 같이 선정하여 총 14회의 방송물을 분석하였다.⁴

표 2. 분석 대상 결혼이주민 개요

이름	성별	국적	한국 거주	주요 소재
줄리아	여	이탈리아	8개월	가부장적 시집살이 문화
아노	남	프랑스	1년 3개월	시장 상인으로 매출 증대
이비일로	남	불가리아	5년	처가살이 및 언어 소통
에이미	여	캐나다	10년	남편, 시댁과의 문화 갈등
니르	남	이스라엘	7개월	주부 역할 수행 및 구직기
베아트리스	여	브라질	1년	신혼 한국생활 적응기
밥	남	미국	7년	세 번째 도전, 빵집 창업
마르하보 사흘러	여	우즈베키스탄	8년 7년	전통 식당 창업기와 자녀 양육의 애환

IV. 분석 내용

1. 드러난 공적 영역

1.1 생산 주체로서 이주남성의 남성성

<이웃집 찰스>의 결혼이주민 재현 분석 결과, 결혼이주남성이 주인공으로 전면 등장하게 됨에 따라 사적인 가족 영역 외에 경제활동 영역까지 재현이 확장된다. 정주해야 할 나라에서 문화차이로 인한 갈등, 그에 대한 수용과 타협, 배제의 교섭 과정뿐 아니라 외국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의 현상이 노출된다. 기존의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재현은 가정이라는 사적 공간 내에서 재생산 영역에서 발생하는 고부간의 갈등 위주로 서사

4. 결혼이주자의 보편적인 재현 방식을 분석하기 위해 혼혈아 이슈를 다룬 ‘엠마’ 편, ‘제주 해녀 되어보기’라는 한일 문화 비교 성격의 ‘하루나’ 편은 선정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아노’와 출신 국가와 소재가 중복되는 ‘니콜라’ 편, 사실혼 관계인 ‘사무엘’편, 미혼 유학생으로 서류상 혼인신고를 하는 과정을 그린 ‘타베아’편이 제외되었다.

가 전개되면서 문제를 드러내지 않거나 혹은 갈등이 있어도 대화로 해결 가능한 젠더 간의 사소한 문제로 축소하는 경향이 있었다[21][29].

결혼이주남성의 서사는 경제적 기반 없이 한국 사회에 들어와 ‘빨리빨리’로 대변되는 한국식 경쟁 문화에서 생존하는 과정에서 외국인에 대한 배타적 태도나 무조건적인 외면 등 일상에서 겪는 차별적 경험[그림1]과 이해하기 힘든 한국문화에 대한 비판적 발화가 노출된다. 예를 들면, 구직 중인 니르는 한국의 이력서 문화가 사진 부착은 물론 가족의 신상과 직업까지 요구하는 사생활 침해 요소와 인권 차별성을 비판하기도 한다. 이런 재현의 양상은 이주여성에서도 나타난다. 한국생활 6년차인 이탈리아 레스토랑 여사장은 “나는 외국인인데다가 여자잖아요”라며 인종과 젠더의 이중적 차별로 한국 사회 적응이 쉽지 않았음을 고백한다.



그림 1. 외국인이 차별받는 장면

정주할 사회에서 소수자로서 결혼이주남성은 한국어 능력의 부진, 사회 관계망의 부재로 주변부적 위치에 자리매김 되면서 외로움과 불안감, 두려움을 드러내는 연약한 존재로 재현된다. 한국 사회에서 이들의 정착 어려움은 공식적인 발화의 기회를 통해 드러나며, 『외로울 뿐』, 『걱정』, 『불편』, 『스트레스』 등의 강조된 자막으로 기존의 한국어를 능숙하게 구사하며 한국 문화를 예찬하는 유능한 백인[30]이라는 고정관념과는 상이한 모습을 보인다.



그림 2. 소수자로서 결혼이주남성 이미지

이와 같이 불안하고 차별받는 약사이면서도 한국 문화를 공식적으로 비판하는 외국인의 모습은 기존의 드라마나 예능, 리얼리티 프로그램에서 나타난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능통하며 한국문화를 예찬하는 ‘유사 한국인’으로 표상되는 서구 사회 외국인과 차별화된다. <이웃집 찰스>에 나타난 이주민은 세계적인 불황의 여파로 청년 실업자, 비정규직 종사자, 은퇴 후 자영업으로 인생 이모작을 살아야 하는 경제적 딜레마에 빠진 불안정한 존재로서 한국인과 유사한 ‘이웃’이면서도, 새로운 문화까지 습득해야 하는 어려움에 처한 ‘차이’를 지닌 소수자로서 재현된다.

1.2 공·사 영역 구분되는 결혼이주민

결혼이주여성도 결혼이주남성과 마찬가지로 생산 현장에서 전문성을 인정받고 일을 즐기려는 진취적이고 활기찬 인물로 나온다는 점에서 기존의 재현과 차별화된다. 그러나 결혼이주여성의 서사 구조는 재생산 영역의 문제가 사건의 발단과 주요 갈등 요소로 전개되는 등 젠더에 따라 공적영역과 사적영역으로 나뉘어 귀속되는 편차가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프로그램이 시작되는 각 이야기의 오프닝 시퀀스(opening sequences)부터 나타난다.



그림 3. 주인공 별 오프닝 소개 영상

[그림 3]에서처럼 결혼이주여성은 레스토랑, 체육관, 다문화센터와 같이 일터에 있는 전문직 여성으로 나오지만, 프로그램 부제는 『사랑밖에 난 몰라』, 『달라도 너무 다른 우리는 권투부부』, 『오늘은 상견례 날』과 같이 사적 영역의 주제로 소환된다. 또한 인물 소개 자막도 『외유내강의 매력을 지닌 마르하보』, 『애교 만점 사흘러』 처럼 여성적 호감도가 높은 인물임을 강조하는 수식어와 핑크색 하트의 픽트그램이나 반짝이 효과 같은 자막 치장과 전통음악으로 여성성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춤추는 출연자의 전신상을 앙각으로 촬영하거나 카메라 틸팅(Tilting)으로 여성의 몸을 훑어보는 시점으로 응시의 대상자로 소개한다. 이와 같은 남성성/여성성이라는 이항 대립은 ‘차이’를 지닌 정체성의 주제로 이주민을 소개하기보다는 특정 개념으로 단순화시켜 타자화한다. 따라서 이들의 어려움은 정주 사회에 정착해야 하는 개인이 겪는 문화 교섭 과정으로 이해되는 게 아니라 젠더 문제로 왜곡될 수 있다.

출연자에 대한 이러한 접근은 인터뷰 화면 자막을 통해서도 나타난다. 결혼이주여성을 아내, 엄마, 며느리로 소개하는 것과 달리, 결혼이주남성은 『크레이프 장사 4개월차』, 『빵집 아저씨』로 직업적 정체성을 부여한다. 결혼이주남성도 저개발국 출신이나 경제활동을 못하는 경우 『부산 처가살이 3년차』, 『생활비를 받는 남편』, 『주부생활 7개월차』, 『한국에서 일하고 싶은 남편』 등으로 차별한다. 결혼이주여성을 성 역할 수식어로 가부장적 가족주의 이데올로기에 고착화시키는 것과 같이, 결혼이주남성에게도 남성 생계 부양자 이데올로기가 강한 한국사회에 부합하는 남성적인 성 역할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2. 가부장적 가족주의와 문화충돌

새로운 등장인물과 그들의 관계 구조는 사회생활의 규범과 사회에서 통용되는 의미와 결부되어 나타나기 때문에 주요한 분석 대상이 된다[28]. 결혼이주여성이 주인공인 기존의 다문화 프로그램에서는 오직 고부만이 나오는 경우가 많았으며, 남편이 나오더라도 주제로서가 아니라 둘의 관계를 연결하는 수동적 역할만 부여되었다[29]. 반면, 결혼이주남성이 주인공으로 등장하

면서 은폐되어 있던 결혼이주여성의 남편과 시아버지 등의 가족 구성원이 자연스럽게 등장한다. 결혼이주여성이 겪는 가족 간의 갈등 원인은 고부간이라는 젠더 내 역할관계가 아니라, 한국의 위계적인 가족주의 문화와 정체성이 서로 다른 문화간 교섭 과정에서 나타나는 충돌로 일상생활 곳곳에서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노출시킨다.

결혼이주민 주인공들은 부부의 경제활동 양상에 따라 가사를 분담하는 유연성 있는 성역할 수행을 보이며 결혼이주남성은 탈권위적인 인물로 나온다. 반면, 결혼이주여성들은 한국식 가족주의 문화로 치열한 갈등을 겪는 것으로 소개된다. 줄리아는 시집살이 8개월 차 맞벌이로 가사 분담 문제, 위계적이고 가부장적인 가족문화로 총체적인 혼돈과 갈등을 겪고 있다. 줄리아의 가장 큰 갈등 요인은 맞벌이이면서 여자만 가사 노동을 전담해야 한다는 점이다. 시어머니와의 갈등 상황에 시아버지와 남편까지 압박감을 주는 인물로 나와 줄리아의 고립감을 더욱 드러낸다. 시아버지는 줄리아에게 “어른이 무슨 이야기를 하면 네, 알겠습니까, 아버님, 어머님”이라고 호칭을 꼭 붙이라고 하거나, “나도 아이 많은 거 좋아해요. 많을수록 좋죠”, “아이를 낳아도 너네 아이지 내 아이인가? 내 마누라가 귀하니까 애를 키워줄 수 없다”고 언술한다. 시부모에게 절대적인 복종을 강요하고, 맞벌이 자녀 부부의 양육 상황은 고려하지 않으면서 손주만 바라는 가부장적 태도를 보이며, 개인주의를 편의대로 선택하는 이기적인 시아버지로 묘사된다. 남편 또한, 시어머니와 대치 상황에서 줄리아에게 웃음을 강요하거나 방관자적 태도로 일관하여 갈등의 증폭자로 등장한다.

예상치 못한 가부장적 문화에 줄리아는 노골적으로 반발하는 모습을 재현되며, 가족 간의 갈등과 대치 상황은 편집과 자막 효과 등의 장면화를 통해 부각된다 [그림 4]. 『밥하고 청소하고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이런 모든 일을 여자들이 해야 한다는 시어머니의 요구에 줄리아가 “맞벌이인데 왜 여자만 하느냐”고 반문하자, 『왜 여자만 하냐고? 우리나라는 그랬다』, 『원래 우리나라 남자들은 잘 안 해』와 같이 한국의 지배문화로 이어온 가부장적 문화를 당연시하는 시어머니의 대사를 화면가득 자막으로 노출한다. 『여자만 집안일을 해야 한다는 한국 시어머니』와 『남자도 같이 해야조라는 이탈리아 며느리』라는 대립되는 언사의 양면 분할 편집으로 갈등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며 시청자의 주목성을 환기시켜 상황에 관여하게 한다. 대사가 충분히 전달되는 상황에서 출연자 대사를 인용하는 흥미유발형 자막은 연출자가 시청자의 감정을 건드려 의사소통하고자 하는 의도의 기능을 수행한다[31].

맞벌이임에도 여성에게만 가사 노동을 요구하는 신가부장적 성 역할을 두고 벌어지는 의견 충돌 현장의 의도적 장면화(mise-en-scene)로 연출자는 한국 사회의 가부장적 불평등 구조를 문제 삼는다. 그러나 가부장제의 모순된 단면을 드러내지만, 출연자나 진행자의 솔루션 제시, 편집 영상 등은 가부장 가치를 온존시키는 한계를 보인다. 진행자는 “줄리아도 타향살이이므로 맘 편하게 고향처럼 지내려면 어느 정도 어머니의 의견을 따라줘야 한다”고 하거나, ‘한국인 며느리’로 인정받는 외국인 선배 출연자 크리스티나는 “남편이랑 같이하기, 시어머니에게 애교 작전, 시어머니 칭찬하기, 한국 드라마 같이 보기, 노래방 가기” 등을 조언하면서 한국 문화로의 동화가 해결책임을 지지한다.

반면 외국인 출연자 아노는 “한계를 두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자꾸 요구한다”고 하거나, 한국 생활 1년 차 선배 출연자 다비드는 “줄리아가 좋아하는 음식을 해달라고 하라”는 반대된 조언을 한다. 함께 촬영에 동참했던 줄리아의 친언니는 “한국 문화를 알고 존중하지만, 시어머니에게 이탈리아 문화도 존중해달라고 말하고 싶은거예요”라며, “서로 대화하고 문화를 섞어야 한다”고 말해 한국인 진행자들과 대조되었다. 위계적 가



그림 4. 고부간의 갈등 장면

부장제의 모습이 방송에서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진행자와 출연자의 솔루션 제시 내용, 개연성이 부족해 보이는 가족 내 갈등 봉합 등은 가부장적 가족주의와 이주민이 가지고 있는 다른 가치관이 프로그램 안에서 산발적으로 충돌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3. 가족주의와 개인주의의 충돌

프로그램에서 결혼이주민은 배우자라기보다는 직계 가족, 때로는 친척과 조상까지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에서 가족 구성원으로 정체성이 규정된다. 이런 상황이 가족주의와 개인주의의 간 갈등의 단초가 된다. 가족주의는 결혼이주민이 나오는 대부분의 회차에서 재현되는데, 이주민을 경쟁력 있는 한국인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직계 존속이 한국어나 한국 문화를 전수하거나, 대가족 모임이나 조상 숭배 같은 생활 의례 학습이 그 예이다 [그림 5]. 또 결혼이주민이 처갓집을 향해 출발하는 장면에서 『가족은 나의 힘』이라는 자막이 크게 배치되어 코너 제목이 된다. 또한 자막의 글씨체도 타이틀체를 사용, ‘가족’을 이주민 재현에 중요한 코드로 부각시킨다.



그림 5. 가족주의의 모습

가족주의적 관점이 서사를 관통하는 가운데, 독립적이고 개인주의의 성향이 강한 결혼이주민이 한국식 가족주의 문화를 수용하지 못하는 경우, 구분·배제되기도 한다. 캐나다 출신 에이미는 한국 문화에 동화되지 않고 서구식 사고방식과 언어를 고수하는 인물로 다방면에서 남편이나 시댁과 문화적 충돌을 겪는다. 에이미에 대한 치칭어 차별과 솔루션 제시를 보면 가족주의의 재현 관점이 확실시된다. 남편과 공동으로 체육관을 운영하는 에이미는 한국 생활 11년, 결혼 5년차이지만 음식, 시댁과의 관계, 임신 문제 등으로 남편과 갈등을 겪는

것으로 재현된다. 에이미는 한국말이 능숙하지 않으며, 밥을 소화시키지 못하는 증상으로 서구식 식습관을 고수하여 한식을 선호하는 남편과 갈등한다. 시아버지가 남편을 위해 반찬을 배달한다고 일터인 체육관에 일주일에 서너 번씩 불쑥 나타나거나, 어버이날 꽃바구니를 체육관에서 팔아달라고 말긴 시누이의 행동에 대해 에이미가 체육관원들에게 부담을 주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갈등이 증폭되다가 급기야 에이미가 부부싸움 후 처음으로 가출까지 하는 상황이 된다.

이렇게 갈등을 보이는 에이미에 대해 프로그램은 ‘전통적 범주에 맞지 않는 가족 정체성’을 띠는 이주민으로 간주하고, 구분·배제하는 태도가 나타난다. 에이미의 인터뷰 소개 자막은 『운동 코치』, 『복싱 선수』, 『체육관 운영』 같이 주로 직업 정체성과 연관되고, 『결혼 5년째 음식 전쟁 중』, 『공·사 구분 확실한 체육관 관장』, 『시댁 식구들과 소통이 힘든 며느리』, 『시아버지의 반찬 배달에 화난 며느리』, 『결혼생활 5년 만에 처음 가출한 아내』, 『임신 얘기가 지겨운 아내』처럼 상황에 따라 다소 자극적인 단어 선택으로 여성 젠더로 규정하여 타자화시킨다. 에이미의 고민 상담에서 한국 생활 38년차인 선배 출연자 로버트 할리는 “결혼은 둘이 사는 게 아니라 가족끼리 결혼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새로운 어머니가 내 인생에 들어온다고 생각하라”고 제시한다. 또한 『결혼은 가족 간의 결합』이라는 눈에 띄는 자막으로 가족주의적 태도를 강조한다.

가족주의와 개인주의의 사이에 생기는 이러한 갈등은 다른 이주민에게도 나타난다. 아노는 매출이 저조한 가게 운영에 대해 아내와 장모가 조언을 하자 자신의 일이라고 분명하게 선을 긋는다. 니르 또한 “(장인 장모님께) 뭘가를 잘해야 한다는 걸 보여줘야 하는 관계가 저의 어깨를 무겁게 했어요”라며 가족 관계의 부담을 노출한다. 프로그램 재현에서 결혼이주민 부부 간의 일상 생활 위주로 서사가 전개되기보다는 확대가족적인 모습과 행사가 매번 등장하면서 가족주의 문화로 인한 충돌과 갈등 양상이 자주 드러났다. 줄리아는 한국 생활 8개월 동안 촬영하는 몇 주가 가장 힘들었다고 고백했으며, 에이미는 결혼 후 처음으로 가출까지 하는 등 촬영 기간 동안 확대가족과의 접촉과 갈등이 프로그램 제

작의 주요한 관심사였음을 추측할 수 있다. 결국, 기존의 이주민 프로그램이 가지고 있던 가족주의 담론이 이 프로그램에서는 좀 더 다양하고 때로는 모순적으로 재현되었다. 갈등과 그 해결에 대한 제시도 출연자의 다양성에 의하여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었다.

V. 결론 및 제언

인종과 국적, 계층, 성별, 직업까지 다양한 이주민 유형의 일상생활을 재현한 <이웃집 찰스>는 미디어를 통해 문화의 다양성을 드러내고 그 실상을 공유해야 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변화를 보여주었다. 리얼리티 이주민 프로그램에서 결혼이주남성이라는 새로운 주체의 등장도 기존의 다문화 프로그램과 어떤 차이를 보이며, 결혼이주인에 대한 공적, 사적 영역에서 재현 양상은 어떠한가를 살펴본 결과 본 연구는 몇 가지 시사점을 제시한다.

첫째, 결혼이주민들은 한국 사회의 ‘가족’ 구성원이 되면서 생산 영역, 재생산 영역, 가족 관계에서 문화교섭을 겪는데, 기존의 결혼이주여성 프로그램에서 은폐되었던 공적 영역까지 재현의 무대가 확대됨으로써 이주민의 다면적 갈등이 표출된다. 기존의 외국인 타자화 경향과는 달리, 예능형 리얼리티 프로그램에서는 재현이 드물었던 외국인이 겪는 차별과 편견의 현장, 정주 사회에서 겪을 수밖에 없는 문화적 갈등, 한국 사회의 고쳐야 할 부분에 대한 비판적 발화까지 다문화의 실상을 드러낸다. 조화로운 다문화사회로의 진입을 위해서는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 인식의 변화가 수반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둘째, 결혼이주남성은 정책과 미디어에서 그 동안 제외되어 실상이 노출되지 않았는데, 이 프로그램을 통해 오히려 결혼이주여성보다 협소한 관계망, 언어 습득 지체로 사회 경쟁력이 저하될 수 있으며, 한정된 일자리로 경제적 주체로서 정착하기 쉽지 않아 보인다. 우리나라의 다문화 정책이 여성가족부 주도로 결혼이주여성에 집중되어 있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다른 이주자들이 정책적으로 배제되어 있다고 비판되는데[32]

결혼이주남성도 한국 사회의 일원이 되는 과정에서 사회적인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셋째, 결혼이주남성의 출현으로 한국 사회의 전통적인 가부장적 가족주의 이데올로기가 사적 영역에서 결혼이주여성을 더 차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젠더 문제가 인종이나 계급 문제보다 가시화되기가 힘들다는 지적에 대해[33], 본 연구는 젠더 간 비교를 통해 여성에 대한 억압을 가시화하고 젠더 문제에 대한 관심을 재고시킨다.

결혼이주여성은 일과 가사의 양립 부담감, 언어 장벽, 양육 등과 관련한 문화적·경제적 차이를 이유로 출산을 기피하며, 실질적으로 돌봄영역 공백의 위기를 겪는 것으로 재현된다. 국제결혼의 출몰이 한국 사회의 저출산이라는 인구재생산 위기 타개책으로 추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결혼이 해결책이 되기는 어렵다는 것을 보여준다. 결국, 가부장적 가족구조가 사회에 자리 잡고 있는 한, 인종에 관련 없이 성차별은 지속되고, 이는 저출산 기조 변화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이런 점은 인구통계학 관점에서 한국의 저출산 원인을 분석한 로슬링의 연구를 뒷받침한다[34]. 로슬링은 한국의 저출산 원인으로 가부장적 가치를 지목하며, 그 해법으로 페미니즘을 통한 적극적 ‘양성평등(gender equality)’ 사회로의 획기적인 전환을 제시한다. 한국에서 여성의 지위는 양성평등으로 출산을 반전을 이룬 스웨덴보다 40년이나 뒤쳐진 상태로, 일·가사·부모 봉양 등 다중고를 겪는 상황에서 저출산은 타개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된다. 본 연구와 로슬링의 전망은 가족 구성원 한쪽에게만 불균등하게 성 역할을 부여하는 가족주의에 대한 문제제기란 점에서 일맥상통한다.

김미라는 예능 프로그램이 사회의 변화를 적극 반영하지만, 동시에 기존의 이데올로기를 고수, 문제를 은폐시키기도 하는 양가성을 보인다고 분석하였다[35]. <이웃집 찰스>는 이와 같이 다문화 사회에 대한 재현의 변화를 보이는 한편, 기존의 편향된 모습을 그대로 보이기도 했다. 이를 정리해보면, 첫째, 변화의 관점에서 이 프로그램은 결혼이주여성의 신전통적 성 역할로 인한 부담감과 확대가족 관계에서 생기는 가부장적 이데올로기로 인한 갈등을 적극적으로 노출하고, 핵가족 위주

국제결혼 부부가 상황에 따라 성 역할을 유연하게 넘나드는 모습을 보여주어 기존 가족주의의 변화의 필요성을 드러낸다. 반면, 이주민 재현에 나타난 가족의 핵심 가치 체계로 기능하는 가족주의 문화는 젊은 세대와 다양해지는 가족 구조의 의식 변화를 수용하기보다는 확대 공동체적 가족주의를 재현된다. 프로그램은 젠더에 따라 서사 전개를 공적, 사적 영역으로 구분하거나 영상기법, 수식어, 전문가 출연자 등을 통해 결혼이주민에게 성역할을 보수적으로 부여한다. 또한 한국의 가부장적 문화와 확대가족주의 가치로 동화될 것을 요구하며, 동화를 거부하는 이주자에 대해서는 백-게른스하임[21]의 주장처럼 구분 배제하는 배타적 태도도 보인다.

결혼이주민이 확대가족을 기반으로 정착하는 모습은 복지 기반이 부족한 한국 사회에서 빠른 문화 습득, 경제적 자립도가 낮은 젊은 세대에겐 안정적 터전 제공, 한정된 인간관계로 발생할 수 있는 고립감을 완충시키는 등의 지렛대 역할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요소가 긍정적으로 노출되면서도 인권을 존중하고 부부 간의 젠더 평등을 지향하는 모습이 융합된 가족주의적 개인화 또는 개인화된 가족주의가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다문화주의가 소수자의 차이를 인정하고 공존을 모색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 한국문화로의 동화보다는 갈등의 원인이 되는 다양성에 중점을 두고 타협의 가능성을 적극 고민하는 미디어의 교섭적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재현 이주민의 인구사회학적 속성에 따라 재현 유형 선택과 구분·배제를 통해 한국 사회에 정착하는 외국인에 대한 인종적 고정관념을 고착화시킬 여지도 나타났다. <이웃집 찰스>는 이주유형별로 한국인과 결혼한 이주민은 자영업이나 전문 직종에 종사하는 백인 위주로, 외국인 간 결혼한 이주민은 유색인종의 난민 출신이나 하층의 노동 영역에 종사하는 유형으로 차별화되었다. 제작진이 한국인과 결혼한 이주민 출연자를 백인과 서구적 외모 위주로 선택한 것은 결혼이주여성의 경우 동양인이나 저개발국 출신의 이주민을 주인공으로 하는 기존의 다문화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할 수 있겠지만, 결혼이주남성의 경우에는 선택이 편향적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또한 이주민에 대한 부당한 차별과 편견을 노출하는

것은 시청자의 자성을 촉구하는 측면도 있지만, 출신 지역과 인종에 따른 반복적 재현은 차별 받는 불쌍한 외국인 이미지로 고착될 수도 있다. 이런 방식의 미디어의 인종화, 서열화는 한국인이 지닌 외국인에 대한 이분법적인 고정관념을 강화하는 도구로 작용할 수 있어 경계가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는 미디어의 제작 방향성을 제시해 이주민 가족 구성원이 양성평등 사회에서 행복할 일원으로 자리 잡고, 조화로운 다문화 사회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조하고자 했음에 연구 의의를 둔다. 하지만, 본 연구는 <이웃집 찰스>에 등장하는 결혼이주민만을 중심으로 하여 서구 이민자를 위주로 분석한 한계를 지닌다. 다른 특성을 가진 이민자들의 결혼이주민 재현에도 이와 같이 변화하는 가족주의적 이미지를 구현하고 있는지, 외국인들끼리 결혼한 이주민 재현과 비교, 분석하여, 가족주의적 관점의 차이를 확대 연구하고, 보완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 다양하게 재현되는 이주민 유형에 맞추어 폭넓은 이주민 재현 연구를 기대한다.

참고 문헌

- [1] S. Castles and M. J. Miller, *The age of Migration: International population movements in the modern world*, Palgrave Macmillan, 2009.
- [2]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5/07/05/2015070501097.html
- [3] 이창호, 정의철, “다문화 사회 대중매체의 사회통합적 역할 탐구,” 한국방송학보, 제24권, 제5호, pp.370-414, 2010.
- [4] <http://media.daum.net/culture/view.html?cateid=1067&newsid=20120124152915263&p=mkeconomy>
- [5] C. Taylor, *Multiculturalism examining and Politics of Educati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4.
- [6] 조은,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가족 정치의 지형,” 한국여성학, 제24권, 제2호, pp.5-37, 2008

- [7] 통계청, “시도/외국인 아내의 국적별 혼인,” “시도/외국인 남편의 국적별 혼인”.
- [8] 장경섭, “개발국가, 복지국가, 위험가족: 한국의 개발자유주의와 재생산 위기,” 한국 사회정책, 제18권, 제3호, pp.63-90, 2011.
- [9] 이승환, “한국‘家族主義’의 의미와 기원, 그리고 변화가능성,” 유교사상문화연구, 제20권, pp.45-66, 2004.
- [10] 이명호, “가족관련 분석적 개념의 재구성, 가족주의에서 가족중심주의로,” 사회사상과 문화, 제28집, pp.359-393, 2013.
- [11] K. Gerson, *The unfinished revolution: How a new generation is reshaping family, work, and gender in America*, Oxford University Press, 2010.
- [12] 신경아, “신자유주의시대 남성 생계부양자의식의 균열과 젠더관계의 변화,” 한국여성학, 제30권, 제4호, pp.153-187, 2014.
- [13] 이수자, “이주여성 디아스포라: 국제성별분업, 문화혼종성, 타자화와 섹슈얼리티,” 한국 사회학, 제38집, 제2호, pp.189-219, 2004.
- [14] U. Beck and E. Beck-Gernsheim, 한상진, 심영희 (편저), *위험에 처한 세계의 가족의 미래*, 새물결, 2010.
- [15] H. K. Bhabba, *The location of culture*, London: Routledge, 1994.
- [16] S. Hall, *The cultural studies Reader*, Routledge, 1997.
- [17] J. Fiske and J. Hartley, *Reading Television*, Methuen, 1978.
- [18] 정의철, “다문화 사회와 이주민 미디어,” 한국언론과학연구, 제11권, 제4호, pp.489-526, 2011.
- [19] 김경희, “텔레비전 뉴스 내러티브에 나타난 재한 이주민의 특성: 뉴스 초점 이주민과 주변 인물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방송학보, 제23권, 제3호, pp.7-46, 2009.
- [20] 이상길, 안지현, “다문화주의와 미디어/문화연구: 국내 연구동향의 검토와 새로운 전망의 모색,” 한국언론학보, 제51권, 제5호, pp.58-83, 2007.
- [21] 이경숙, “혼종적 리얼리티 프로그램에 포섭된‘이산인’의 정체성: <러브 인 아시아>의 텍스트 분석,” 한국방송학보, 제20권, 제3호, pp.239-276, 2006.
- [22] 권금상, “대중매체가 생산하는‘이주여성’재현의 사회적 의미,” 다문화사회연구, 제6권, 제2호, pp.39-81, 2013.
- [23] 정선주, 최성보, “TV프로그램에 재현되는 한국적 다문화주의의 특성: EBS<다문화고부열전>을 중심으로,” 다문화교육연구, 제8권, 제2호, pp.97-122, 2015.
- [24] 김수정, 김은희, “아시아여성의 국제결혼에 대한 미디어 담론,” 한국언론정보학보, 제43호, pp.385-426, 2008.
- [25] 김인영, 박관영, 이인희, “TV프로그램에 나타난 한국적 다문화주의의 특수성에 관한 미디어 담론: KBS <러브 인 아시아>와 <미녀들의 수다>를 중심으로,” OUGHTOPIA, 제24권, 제2호, pp.69-95, 2009.
- [26] 손희정, “우리시대의 이방인 재현과 자유주의적 호모내셔널리티,” 문학과과학, pp.364-386, 2015.
- [27] 홍지아, “‘젠더적 시각에서 바라본 한국 언론의 다문화 담론’ 경향, 동아, 조선, 한겨레 기사 분석을 중심으로,” 언론과학연구, 제10권, 제4호, pp.644-678, 2010.
- [28] D. Bordwell and K. Thompson, *Film art: An introduction* (9thEd.), McGraw-Hill, 2010.
- [29] 강현민, “다문화가정의 사소한 갈등: <다문화고부열전>을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5권, 제8호, pp.179-185, 2015.
- [30] 안진, “나는 왜 백인 출연자를 선택하는가?,” 미디어, 젠더 & 문화, 제30권, 제3호, pp.83-121, 2015.
- [31] 정수영, “TV 영상자막의 특징 및 기능에 관한 연구,” 한국언론학보, 제53권, 제6호, pp.153-176, 2009.
- [32] 조지영, 서정민, “누가 다문화 사회를 노래하는

가?: 신자유주의적 통치술로써의 한국 다문화 담론과 그 효과,” 한국 사회학, 제47권, 제5호, pp.101-137, 2013.

[33] 전경옥, “젠더 관점에서 본 다문화 사회의 사회 통합,” 아시아여성연구, 제46권, 제1호, pp.7-42, 2007.

[34] <http://www.fnnews.com/news/201510041729305310>

[35] 김미라, “TV매체에 재현된 새로운 남성성 (masculinity)과 그 한계,”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4권, 제1호, pp.88-96, 2014

저 자 소 개

박 미 경(Mi-Kyoung Park)

정회원



- 1988년 2월 : 서울대학교 불어불문학과(문학사)
- 2016년 8월 : 고려대학교 언론대학원(언론학석사)
- 2015년 3월 ~ 현재 : 수원대학교 산학협력단 교수

<관심분야> : 영상콘텐츠, 교육콘텐츠, 문화콘텐츠

이 현 울(Hun-Yul Lee)

정회원



- 1994년 2월 : 고려대학교 신문방송학과(언론학)
- 2001년 8월 : University of Iowa 석사(Communication Studies)
- 2005년 8월: University of Iowa 박사(Communication Studies)

▪ 2006년 3월 : San Francisco State University 조교수

▪ 2010년 3월 ~ 현재 : 고려대학교 미디어학부 교수

<관심분야> : 방송제작, 영상콘텐츠, 문화콘텐츠